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3월 27일(금)

(음력 2월 9일)

Пятница

27 марта 2026 г.

№ 12 (1217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27일은 세계 연극의 날이다. 이날 사할린 체호브센터와 사할린인형극장에서 이와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사할린 과학 발전 우선순위 정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는 사할린 주 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 및 인재 양성 전략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유리 쿨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지부장, 주요 연구소·지역 선도 기업·정부 기관·사할린국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할린주 정부 공보실은 이같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과학 발전의 유망 분야를 논의하고, 고급 인력 양성에 있어 사할린 국립대의 역할과 학술 연구를 지역 경제의 실질적 수요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수년간 사할린주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 성과를 유지해 왔다. 이제 과학기술 전략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 제시할 시점이 된 만큼, 극동지부와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 전망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는 사할린 주 정부의 의뢰로 지역 과학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광물 자원, 에너지, 무인 시스템, 대륙붕용 로봇 솔루션,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해양 양식, 보건의료 분야를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

그리고리 돌기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이자 극동지부 부지부장은 "사할린주에

는 과학기술 발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아카데미 측은 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광물 자원, 기후 변화, 해양 양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극동지부와 사할린국립대의 주요 협력 방향은 기초 과학과 학계의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대학 내 우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학아카데미는 섬 지역의 과학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사할린주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주 정부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과학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신진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7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청년과 어린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교육연구동이 완공될 예정이다.

극동지부는 기업들이 사할린 현지에서 직접 과학 연구를 의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은 섬 지역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세션 참석자들은 '2036년까지의 사할린주 지역 과학기술 발전 프로그램 컨셉'의 높은 완성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 사할린주, 투자 증가율에서 러시아 상위 5위 달성

사할린주에서 2025년 고정 자본 투자는 총 4,520억 루블리에 달해 2024년 대비 19.8% 증가했다. 섬 지역은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 최고 투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민간 투자가 전체 투자 구조의 거의 94%를 차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석유가스, 운송, 건설, 석탄 산업, 어업 분야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섬의 인프라 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반영한다. 기업들이 사할린주를 투자처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신호다. 우리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총재는 중소기업들이 투자 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5년의 가장 중요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간략히 소개했다: '사할린 투르비나 서비스' (가스터빈 장비 유지보수 회사) 설립, 코르사코브 항구 재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활주로 건설, 오조르스크에 마을 수산물가공공장 가동, 쉬코탄 섬 수산물 공장 건설, '고르니 위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3단계 호텔 건축, '사할린테크' 캠퍼스 기숙단지 완공 등이다.

## 단신

### '책임 있는 고용주-행복한 모성' 품질표시 사할린서 처음 수여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지역 품질표시 '책임 있는 고용주-행복한 모성'이 수여됐다.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기업에 주는 새로운 상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4개 기업에 품질표시를 전달했다. 수상 기업은 커피전문점 '로엘', 군보험회사 사할린 지사, '사할린 에너지' 유한책임회사, '섹토르' 유한책임회사다.

사할린의 '행복한 모성' 운동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역에 제시한 출산율 제고 과제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260여 개 섬 기업이 새로운 기업 인구 통계 기준에 동참했으며, 핵심 가치는 임신부와 젊은 엄마, 다자녀 어머니 지원이다.

###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 자선 콘서트 유즈노사할린스크서 개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를 돕는 자선 콘서트 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인민전선' 사할린지부가 사할린주정부, 주문화·기록물관리부, 에스트라다예술인연맹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공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출연자만 무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여성의 마음이 부드러움과 강인함, 아픔과 희망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세이 크루치닌 부지사 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군인들이 승리를 거두고 고향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이 행사에서는 누구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 모금된 기금은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섬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문화기관 직원 축하

3월 25일은 러시아 문화분야 근로자의 날이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은 도시의 문화 생활이 해마다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에만 약 6800건의 행사가 열렸으며 92만 4000명이 참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20개 도서관, 7개 예술학교, 9개 문화회관, 문화관광센터 등 40개 문화기관이 있다. 시에는 178개 창작단체와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예술학교 학생은 2600명이 넘는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박수식 사할린교육원장: '지속가능한' 한국교육원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교육원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2026년 3월 1일부터 사할린교육원 원장으로 박수식 교육자가 부임되었다. 본 사 배순신 기자는 신임 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원장님, 우선 사할린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할린에 도착하신 첫 소감은 어떠셨나요?

- 첫인상은 눈이죠. 사할린은 역시 눈이 많이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봄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는 3월인데도 연일 눈입니다. 온 거리를 덮고 있는 눈과 24시간 눈을 치우는 차량과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할린에 오면 키높이의 눈, 곰 가족, 연어 떼 등을 보고싶었습니다. 그보다 더 보고 싶었던 것은 사할린 동포였던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만나 뵙는 사할린 한인들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쳐서 너무나 인상적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긴 세월 동토에서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어느 민족들보다 더 사할린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 사할린교육원장직을 지원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교감 승진을 하였고 지난해에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장을 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뭔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적 헌신, 공헌을 할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할린 동포들의 애환과 눈물이 서려있는 사할린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3년간 교육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에 오기전에는 21년간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대도시/농어촌, 일반교/특성화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경력을 쌓았고 최근 3년은 거창승강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 사할린한인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사할린에 계신 대

부분의 동포들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원장님도 경상도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온 사할린 한인의 아픈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고난의 역사입니다. 강제 노역과 폭력, 배고픔을 겪은 탄광의 삶, 전쟁 말기에 다시 일본으로 끌려가 이중징용과 이산의 아픔, 해방후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잔류되어 인본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무국적 상태의 혼란, 그리고 그 이후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영주귀국으로 인한 또 다시 이산의 아픔까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입니다.

저도 경상남도 함천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최근 근무는 그 인근의 거창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3주 동안, 여성의 날 행사, 은하수 한글학교, 홈스쿨 한글학교 등에서 보였던 많은 동포들이 대부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저의 사투리가 친근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투랑 너무 비슷하다는 교육원 문화강좌 학생의 말이 기억나네요. 만나서 반갑고 3년 동안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이곳에 오신 지 3주 좀 넘으셨는데, 인사는 많이 나누셨는지요? 그리고 현재 업무 파악은 어느정도 되셨나요? 직접 강연이나 수업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3주밖에 안 되었지만 수업시간과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분들과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1,2세대 동포들께서는 아들딸 댄다며 어찌나 정감 있게 저를 대하시든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혼자 왔다고 하니 잘 챙겨먹으라고 제대로 한국 맛 나는 나물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 정승훈 원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너무 잘 해주셔서 업무 파악에 무리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국과 달라 초기에 힘들었지만 이제 제법 파악한 듯합니다.

아직 강의나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계기교육 형식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념일이나 사회이슈에 대한



내용 전달과 한국인들의 의식 등을 한국어 및 문화수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 지금 현재 한글학교나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교육원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지속가능한' 한국교육원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1,2세대 뿐만 아니라 3,4세대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젊은 한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좌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 사할린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을 텐데, 들어보니 가족분들은 함께 오시지 않았네요.

- 아내와 딸 하나 있습니다. 딸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객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사할린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딸 또한 서울에서 객지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아내가 국내에서 딸을 챙겨야 할 것 같아 혼자 왔습니다. 가족 3명이 뿔뿔이 흩어진 셈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사할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 혹시 아직 적응 중이신가요? 사할린의 날씨나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설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언어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빨리 러시아어를 회화가수준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날씨는 사할린 겨울의 진면목을 아직 겪지 않아 사할린 겨울의 혹독함을 느

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이 아직은 낭만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이정도면 적응한 거겠죠.

- 업무외에는 취미로 자연을 즐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소 취미는 무엇인가요?

- 주말에 집 창문으로 보이는 스키장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밤에는 조명을 켜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어들을 보며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노우보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2번 다녀왔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에서 보이는 스키장은 정말 일부분이 더군요. 산 뒤에 자연설과 함께 길게 뻗어 있는 스키장은 국내에 있는 전체 스키장을 다모아도 사할린 스키장이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설질이 좋고 슬로프 관리가 너무 좋아 내년에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가가린공원에서 많이 뛰니다.

-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 다소 진부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라는 말처럼 긍정적으로 뜻을 두고 움직이면 길은 반드시 있으며 한계 또한 없다는 뜻입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사할린 동포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세운다면 환경이 다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신문 독자분들에게, 특히 사할린동포분들과 한국어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한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은 재외 동포 및 외국인들 각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할린의 모든 분들이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바시바.

- 사할린에서 모든 기획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모 저 모

### 사할린서 처음으로 '햇살' 국제 아동창작축제 열려

'햇살'국제 아동·청소년 창작 축제의 전러시아 예선이 4월 26일 코르사코브에서 열린다.

이번 예선에는 청소년과 성인 예술가들이 참가해 보컬, 안무, 악기 연주, 서커스, 오리지널 장르, 미술·공예 부문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2026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러시아 89개 연방주체 수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주최는 전러시아 공공기관 '러시아 청년 과학·창작·혁신 활동 발전 국가체제 통합'과 중국 헤이룽장성 측 파트너 기관인 하얼빈 문화관광국, 하얼빈 어린이 창작회관, 시청년연맹이 맡는다.

주관은 '통합' 러시아 사회단체 사할린 지역 지부가 맡았으며, 국제 종합 아카데미 '스카이허브'가 후원한다.

심사위원단은 부문별 총점을 기준으로 1·2·3등 수상자와 입상자를 선정한다.수상자들은 2026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국제 아동·청소년 창작 페스티벌 '햇살' 결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행사는 코르사코브 문화여가센터 '오케안'(몰로조즈니 프 로스펙트 7)에서 열린다. 오전 11시 공식 개막식이 열리며, 오후 5시에는 시상식이 진행된다. 입장은 무료다.

###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Лучи солнц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в Корсакове 26 апреля.

Молодежь и арт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йдутся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вокалу, хореографи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цирковому искусству, оригинальному жанру, а такж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В 2026 году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отправил приглашения главам всех 89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Учредител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система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й, творческой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нтеграция» и партнеры из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ьцзян: департамент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Харбина, Дворец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 Комсомоль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города.

Осно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нтеграц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й академии «СкайХаб».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выберет лауреатов I, II и III степеней, а также дипломантов на основе суммарных баллов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Лауреаты с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работ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инале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Лучи солнц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с 25 по 30 июня 2026 года в Даляне, Китай.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ится в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Океан» в Корсакове по адресу: проспект Молодежный, дом 7.

В 11:00 начнется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а в 17:00 пройдет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Вход свободный.

### '최고 직업인'대회 입상자에게 상금 100만 루블리

사할린주에서 올해 전러시아 직업능력경진대회 '최고 직업인' 지역 대회가 3개 부문에서 열린다.경기 부문은 '전기공', '수의사', '두 번째 출발'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받을 예정이다.

사할린주 노동고용청의 타치야나 월리나 부청장은 "올해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를 위한 신규 부문 '두 번째 출발'을 도입했다"며 "이 부문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며, 참가자들이 재교육 이수 증명 등 추가 요건 없이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사할린 출신 참가자가 처음으로 전러시아 결선에서 입상했다.니콜라이 이콘니코브는 '최고 굴착기 운전기사' 부문에서 전국 3위에 올랐다.

'최고 직업인' 대회는 러시아 노동부가 2012년부터 주최해 온 행사다.이 대회는 2025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편됐으며, 국가 프로젝트 '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방 프로젝트 '노동인간'의 핵심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면에 계속)

##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박노학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추진

지역사회단체인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김태익 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을 위해 헌신한 박노학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추진 운동의 대부분을 짊어지는 고 박노학 선생은 1959년에 일본에서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를 창설하고 30년간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친 분이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1959년부터 사할린 한인 편지를 한국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이었다. 30년간 그는 아들 박창규와 함께 3만여 통의 편지를 전달했다. 박노학 선생은 이를 토대로 7천여 명의 '가라후토 한국인 귀환 희망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번 영화 <박노학>은 바로 이분의 삶과 투쟁, 그리고 유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영화 감독은 <토

박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사할린한인 3세인 도카 안톤 감독이 맡았다. 기획 전체 책임자는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김태익 회장이며, 한국 파주에 계신 박승의 선생은 시나리오와 자료 조사를 맡았다.

영화에는 박노학 선생의 아들 박창규 씨, 한국 연구자 오일환 교수와 방일권 교수, KIN(지구총동포연대) 최상구 대표, 일본 변호사 다카기 켄이치, 사할린 한인사 연구자인 진 율리아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1세 사할린한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영화 제작은 재외동포청, 사할린 한인 단체, 사업가, 개개인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사할린과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사할린에서의 모금은 이채인 활동가가 맡았다고 기획 측에서 전했다.

(배순신 기자)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성백

관리번호 95589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성백	한자	金成伯
이명	金星伯, 金成白, 치훈 이와노유치 킴	성별	남
생년월일(1878)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북도 경성 28		

### 공훈록

1909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하얼빈지방회 회장, 1912년 대한인국민회 만주리아지방총회(滿洲地方總會) 총회장으로 선임되어 하얼빈 한인사회를 이끌었으며, 1921년 러시아 치타(知多)의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정부 한인부에서 활동하였다.

1909년 5월경 하얼빈(哈爾濱)에서 대한공립회(大韓共立會)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 미주 국민회의 인준을 얻어 국민회 하얼빈지방회로 개편하였다. 이때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 의거 연루자로 일제에 의해 지목되기도 하였다.

1910년 2월 하얼빈지방회 특별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하얼빈 재류 한인들을 국민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한편, 동흥학교(東興學校) 교장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음력 7월에는 하얼빈 남쪽 석두하자(石頭河子)에 특과원을 파견하여 횡도하자(橫道河子)·묵릉(穆陵) 세 곳에 국민회 지방회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4개 지방회가 설립되자, 1910년 10월 대한인국민회에 만주리아지방총회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회는 정식 지방총회가 설립될 때까지 하얼빈지방회가 만주 지역 4개 지방회를 총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12년까지 하얼빈지방회 회장이자 사실상 지방총회장 역할을 하였다.

1912년 2월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만주리아지방총회가 정식 인준되자, 같은 해 5월 만주리아지방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만주 지역 8개 지방회를 총괄 관할하였다. 같은 해 7월 가즈라 타로(桂太郎)가 하얼빈을 통과할 때, 가즈라 암살 계획 혐의로 러시아 관헌에 체포되어 이르쿠츠크로 추방되었다.

1920년 이르쿠츠크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10만 루블을 지원하였다. 1921년에는 러시아 치타로 이주하여 치타의 극동공화국 정부 한인부에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도산안창호전집(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0) 제5권 399~400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

회, 2005) 제1권 231면, 제18권 167, 442~459, 516, 527~529면,

·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를 기술하다(1909. 12. 5), 근대중간관계사자료회편(국사관, 1987) 제8편

· 1910년 전후 미주지역 共立協會·大韓人國民會의 민족운동 연구(김도훈,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45~153면

· 在哈爾濱附近 朝鮮人 及 排日者의 氏名에 관한 건(1910. 12. 28), 當地方 在留朝鮮人의 動靜에 관한 건(1911. 2. 28), 朝鮮人의 露國歸化에 관한 檄文翻譯送付의 건(1911. 6. 15), 當地 朝鮮人國民會員의 動靜에 관한 건(1912. 1. 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1)

· 開拓里狀況 報告의 件(1911. 3. 24), 哈爾濱으로부터 歸來한 鮮人의 談片(1912. 7.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2)

· 在外 朝鮮人 結社團體狀況(1913. 3. 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4)

· 鮮人의 排日運動根絶方에 관한 件(1914. 9. 14), 在露鮮人排日運動根絶方에 관한 件(1915. 8. 6), 在露鮮人排日運動根絶方에 관한 件(1915. 11. 1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5)

· 排日鮮人의 退露處分에 관한 건(1914. 12. 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

· 東清鐵道 부속지대 내 排日鮮人 검거에 관한 건(1916. 5. 5), 排日鮮人의 처분에 관하여 露國側에 교섭의 건(1916. 5. 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6)

· 要注意鮮人表 進達의 건(1917. 5.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6)

· 鮮人의 행동에 관한 건(1920. 1.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9)

· 知多 鮮人의 행동에 관한 건(1921. 5. 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11)

· 新韓民報(1909. 6. 9, 12. 1, 1910. 10. 19, 11. 23, 1912. 7. 1)

· 在哈爾賓憲兵隊長의 情報通報(1909. 11. 8), 兇行 連累者 調査 顛末報告(1909. 11. 11) 統監府文書(國史編纂委員會, 1999) 제7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6면, 제11집 67면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76) 자료(6) 안중근 편 44~48면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1995) 13 日本篇(1) 亞洲第一義俠 안중근(i)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1995) 15 日本篇(3) 亞洲第一義俠 안중근(iii)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끼다. 석구가 이제 내 대신 동생들 잘 돌봐라.”

준구는 동생들을 앉혀놓고 울음을 삼켰다. 화태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화태, 화태 했다. 거기 가면 살아서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에게서 준구가 화태에 가게 됐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화가 났다. 부모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구장과 동네 사람들이 준구를 떠민 것 같았다. 만약 준구가 돌아오지 못하면 석구와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 말처럼 돈을 벌어서 올 수 있을까. 나쁜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흔들어도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책 읽기에 빠진 석구의 구부정한 등이 떠올랐다.

나는 이 년 전부터 동네 야학에서 석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경성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박진사 아들이 저녁마다 사랑방에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는 석구와 같이 공부하고 싶어 밤마다 사랑방을 드나들었다. 나는 소학교를 졸업했지만 박진사 아들이 읽어주는 이야기책들이 좋아서 빠지지 않았다. 석구는 학교를 못 다녔지만 한글과 한자를 혼자 익히고 누구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다. 박진사 아들의 어려운 책을 제일 많이 빌려 읽는 사람은 석구였다. 준구는 그런 석구에게 동생들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든 건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형님, 내가 대신 갈까만. 형님은 장남인데 아무래도 야들을 위해서도 형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나도 이제 열여덟이나 됐으니 못할 게 뭐 있겠노.”

석구가 형 대신 화태에 가겠다고 나섰다.

“안 된다, 나는.”

준구는 석구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석구는 완강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석구는 나를 찾아왔다.

“이 년만 기다리라. 내 돈 벌어서 니랑 꼭 혼인할까다.”

열여덟 살 석구는 뒷동산 당산나무 아래에서 비장한 선언이라도 하듯 말했다. 낮처럼 날카로운 초승달이 석구의 눈을 찌르기도 한듯 자꾸만 눈을 비볐다. 그의 형 준구에게 징용이 나왔는데 왜 석구가 간단 말인가. 나는 석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석구가 불쑥 내 손을 잡았다.

“안 된다, 석구 니는 가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석구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난 봄 장날처럼.

그날은 읍내에서 만난 석구와 함께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보름달이 떠서 들길은 광목을 펼친 듯 환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번졌다. 나란히 가던 석구가 쭈뼛 거리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크고 두툼하고 거친 손이었다. 떨리는 그의 손에서 땀이 배어났지만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석구는 그날처럼 다시 내 손을 잡았다. 맞잡은 손바닥에서 그와 나의 숨이 섞여 소용돌이쳤다.

“내 꼭 온다. 기다리라, 알았나?”

그가 다짐을 받듯 내 눈을 뚫어저려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호에 계속)

(전호의 계속)

뒷산은 솔 잎이 쌓일 새도 없이 다 굽어 가버려 바닥은 비질이 잘된 마당처럼 깨끗해서 먼산까지 가야 겨우 나무한 집을 할 수 있었다. 석구네는 나무를 해서 읍내에 가 보리쌀 몇 되와 바꾸어 네 형제가 겨우 연명을 했다.

“여 올라봐라.”

석구가 지계를 받쳐놓고 바지계 위에 나를 안아 올렸다. 무릎에서 붉은 피가 흘러 바지를 적셨다. 석구가 목에 감은 베 수건으로 피가 흐르는 무릎을 짊 뭍었다. 피가 배어 나와 베 수건이 붉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가 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가 나를 태운 지계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 살 차이지만 체격이 큰 석구는 나를 너끈히 지고 묵묵히 내려갔다. 자잘한 나뭇가지 위에 솔갈비를 엮은 바지계 안은 이불을 깔아 놓은 듯 폭신했다. 나는 기분 좋은 흔들림을 즐기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녹은 햇빛이 소나무 가지 사이를 뚫고 내려와 이마를 어루만졌다. 석구의 등은 요람처럼 편안했다. 그날부터였다, 석구가 내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석구네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다. 초가는 몇 년 동안 이영을 새로 하지 못해 썩은 짚이 열병환자 머리카락처럼 한 움큼씩 빠진 채 내려앉았고 마루는 커녕 토방도 없는 단칸방에서 네 형제가 살았다. 석구 아버지는 총독부의 토지조사 때 신고를 하지 않아 그나마 조금 있던 밭패기를 빼앗긴 후 폐인이 되었다.

“토지 신고가 뭘지 우리가 알기를 했나. 그래 땅 빼긴 집이 한둘이 아이랬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땅을 빼긴 석구 아버지는 전라도 땅 어디로 품을 팔러 갔다가 삼년 만에 허리를 다쳐서 돌아왔다. 늘 누워 지내던 그는 언젠가부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배에 복수가 차서 죽었다. 석구 어머니도 유복자인 막내를 낳은 후 산후풍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아기가 두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석구의 형 준구가 일찌감치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하며 동생들을 키웠고 석구 역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다. 준구와 석구는 어느덧 장정이 되어 동네 손이 필요한 곳엔 어김없이 나타나 어려운 일들을 척척해 냈다. 타고난 강골로 형제 모두 힘이 좋아 어려서부터 몸을 부러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

준구에게 징병이 나왔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후 어지간히 힘쓰는 남자들을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석구의 형 준구에게 징용이 나왔다. 동네마다 할당된 인원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순사는 구장집을 뺨질나게 드나들었다. 구장은 연신 담배를 피우더니 어느 날 준구를 불렀다.

“아무래도 준구 니가 댕기와야 할거 같다. 다들 자식들이 줄줄이 팔리 있고 몸도 시원찮아 갈 사람이 없데이. 이년만 일하면 돈도 주고 보내준다카이 우짜겠노.”

평소 준구를 야기던 구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동네서 한명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재소 순사가 통첩하자 구장은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준구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년 후에 내 꼭 돈 벌어서 돌아 올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ОО ОСК объявило о создани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ак Но Хак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объявила о запуске нов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 создани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посвященного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Но Хак 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святили себя делу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Пак Но Хак смог покинуть Сахалин в 1958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женитьбе на японке, однако он не забыл о тех, кто остался на острове. В 1959 году он создал в Японии «Общество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корейцев с острова Хвате (Сахалин)», которое возглавля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30 лет. Пак Но Хак умер в 1988 году.

Для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 и его соратники долгие годы оставались единственным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Корее. Именно через них передавались письма, ставшие для людей единственной ниточкой надежды.

На основе этой переписки был составлен знаменитый «Список Пак Но Хак»,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6924 человека, изъявивших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уже дали ключевые эксперты и родственники:

· О Иль Хван — автор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го ис-



следования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Но Ха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Че Сан Гу —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Пак Чан Гю — сын Пак Но Хака, который пересылал письма сахалинцев корейск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 самой Корее;

· Такаги Кенити — адвокат из Японии, занимавшийся проблемами и судебными иск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Дин Ю.И. — историк,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ад проектом фильма работают:

· Ким Тхе Ик (МОО ОСК) — об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 Дока Антон — режиссер

(режиссер фильма «Местные»);

· Пак Сын Ы (г. Пхадю,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работа с первоисточниками, сценарий;

· Ше Ген Бок (МОО ОСК) — администратор проект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фильм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за счет грантовых средств, средст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изнесмен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 также пожертвований частных лиц.

Сбор денег пока идет в Москве и на Сахалине. На Сахалине сбором пожертвований занимается активист И Че Ын.

(Виктория Бя)

## Сахалинск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завоевали в Хабаровске 24 золотые и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Кристалл»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тхэквондо ГТФ. В копилке команды — 24 медали, из которых 10 высшего достоинства, остальные медали — серебряные.

С 23 по 26 марта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ходили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ДФО по тхэквондо ГТФ. Че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щищ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ГТФ ОГАУ ДО «СШ «Кристалл». Все дни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дались напряженными, но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личную подготовку, стойкость и настоящий характер.

Среди юниоров 15–17 лет Мильяна Бабенко завоевала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52 кг в дисциплине массаги и в дисциплине стоп-балл. Артём Тимко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ёром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58 кг (стоп-балл).

У юношей 12–14 лет в дисциплине массаги золото взяли Абубакир Умурзаков (40 кг) и Владислав Ма (65+ кг). Серебро — у Богдана Лабунского (45 кг), Арсения Надькина (55 кг) и Дениса Ли (60 кг). В стоп-балле отличились Абубакир Умурзаков (40 кг), Денис Ли (65 кг) и Владислав Ма (65+ кг) — все с золотом, а Богдан Лабунский (45 кг) добавил в копилку серебро.

Особо ярко выступил юный спортсмен Иван Плошко (10–11 лет). Он стал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первенства, забрав тр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 в дисциплине хьёнг, массаги (43 кг) и стоп-балл (43 кг).

В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цы тоже не уступили: второе место в тэг-тими 3×3 и второе место в командных массаги 6×6.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составила серьёз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и доказала сво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ак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ГТФ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еб Буторин, такой результат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упорству спортсменов и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трен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 Ан Сухаги, А. В. Буторина, А. К. Ковригина.



— Отдель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нами трудились над воспитанием наших чемпионов. И, конечно, без поддерж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шей спортшколы «Кристалл» ничего бы не получилось, — подчеркнул Глеб Буторин.

Завоеванные медали стали ярки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школа тхэквондо ГТФ уверенно держит планку лиде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Ш «Кристалл»)

## Форум по вопросу объединения виз Н-2 и F-4 обозначил новый этап диалог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е

13 март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многосторонний форум «Как объединение виз Н-2 и F-4 меняет жизн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менения и ожидания». Само название встречи точно передавало её смысл: речь шла уже не о гипотетической реформе, а о том, какие ре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несёт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состоявшееся объединение визовых категорий и какие ожидания оно формирует внутри диаспорных сообществ.

Во встреч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сследователи, чиновники профильных структур и активисты диаспорных сообществ.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форуму прид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ух крупных групп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сегодн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корё-сарам из стран СНГ.

Сам факт такого диалога стал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обсуждались внутри отде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впервые прозвучали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стория визовых режимов: как возникла нынешняя система**

Чтобы понять значение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менений,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неизбежно обращались к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визов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сновной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ы стал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приняты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1999 году. Его целью было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и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по всему миру и создание правов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олее а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Однако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возник серьёзный вопрос. В 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редакции полноценный статус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фактически предоставлял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тем, чьи семьи эмигрировали посл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1948 году. Потомки ж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значительно раньше — прежде всего в Китае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оказались в иной правовой ситуации.

Это вызвало долгую дискуссию и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диаспор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авозащитных структур.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кон был пересмотрен,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не исчезла полностью, а лишь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Позднее, в 2007 году, была введена виза Н-2, предназначенная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ежде всего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а категория виз дав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легально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крепляла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ный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по сравнению с визой F-4,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нутри самой диаспоры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своеобразная иерархия визовых

режимов. Одни категор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лучили более устойчивый статус и большую свободу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другие оказались в более ограниченных рамка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бъединение визовых категорий Н-2 и F-4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мног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споры как важный шаг к преодолению прежнего разделения. Однако сам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одчёркивали: изменение виз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амо по себе не решает всех вопросов, накопившихся в жизн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зиция корё-сарам: взгляд изнутри диаспоры**

Одним из дискуссионных форумов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анна Тен.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а обозначила ряд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ощущаются в русскоязычном сообществе корё-сарам.

Её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не столько формальной стороне визовой системы, сколько тому, как эти правила отражаются на реальной жизни семей.

Одной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тем стала проблема членов семей. Многие корё-сарам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ами. При этом примерно в 15–20 процентах семей один из супругов не является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ем.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супруг получает статус, который не даёт права на легально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ь семей оказывается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один из взрослых фактически лишён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ать, даже если у него есть жела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трудиться.

Эта проблема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выглядит на фоне постоянных разговоров о нехватке рабочей силы в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Государство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ет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за рубежа, однако люди, уже живущие в стране в составе семе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казываются ограничены в доступе к законной занят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никает противоречие между реальн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экономики и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авовыми рамкам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в выступлении было уделен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переселения. Сегодн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сё чащ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возможный ресурс для регионов с сокращающимся населением. Однако реальные пример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переезд семей в такие регионы нередко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тсутствием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хватк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слабой системой поддержки на местах.

Говоря о языковом вопросе, Жанна Тен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корё-сара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перестал быть языком повседневного общ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ие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фактически начиная его освоение заново, причём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уж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ботать, содержать семью 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ой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К призывает Японию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школьные учебники

24 марта Сеул призвал Токио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школьные учебники, удалив из н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етензи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Японии представило список учебников по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утверждённых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начиная с 2027 год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учебников острова Токто, которые Япония называет Такэсима, описываются как часть япо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них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острова переданы под японскую юрисдикцию и включены в состав префектуры Симанэ в 1905 году, а контроль РК над островами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незаконный». Министр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Хиротаку Мацуо был вызван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где ему заявлен протест по поводу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Токио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также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Япония продолжает публикацию учебников, отрицающих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и сексуальное рабство, применявшиеся япон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ей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Концерт BTS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видео Netflix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первого за почти четыре года концерта группы BTS набрала 18 млн 4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на Netflix, включая зрителей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и тех, кто смотрел трансляцию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после её начала. Трансляция BTS the Comeback Live: Arirang возглавила еженедельный чарт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видео Netflix. Она возглавила чарты в 24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РК, Мексику, Японию, Филиппины, Индонезию и Болгарию, а также дебютировала в топ-10 в 80 странах. 21 марта группа выступила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перед десятками тысяч поклонников в честь выхода своего пятого студийного альбома Arirang.

##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Как сообщили 25 мар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в янва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родилось 26.916 детей, что на 11,7%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растёт 19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начиная с июля 2024 года.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число рождений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в течение её жизни, составил 0,99,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1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январе в стр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2.640 браков, что на 12,4%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опережающим индикатором рождаемости,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рождаемости сохранится. В январе умерли 32.454 южнокорейца, что на 17,6% мен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 5.538 человек.

## В РК снизились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25 марта Банком Кореи, составил 107,0 пункта, что на 5,1 пункта ниже показателя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яца. Значение выше ста пунктов указывает на оптимистич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Снижение индекса после двух месяцев роста вызвано опас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замед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з-за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жиданиями роста инфляции и волатильностью финансовых рынков.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на основе шести показателей: текущего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домохозяйств, ожидаем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ожидаемых доходов, ожидаем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расходов, оценки тек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ожиданий буд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Снижени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пять из шести показателей, причём максимально снизился прогноз буд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на 13 пунктов, составив 89 пунктов. Прогноз ожидаем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расходов, составляющий 111 пунктов, остался без изменений.

## 279 компаний РК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 косметики в Италии

279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косметики Cosmoprof Worldwide Bologna,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итальянском городе Болонья с 26 по 28 мар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содействию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их продукция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общем павильоне K-Beauty. При содействии KOTRA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жду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косметики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покупателями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ыставка Cosmoprof Worldwide Bologna,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с 1968 год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лиятельных мировых событий в индустрии красот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ят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компаний из 65 стран, а число посетителей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RKI

## Курс на обновление элиты: В КНДР прошло заседание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ительную телеграмму лидеру КНДР Ким Чен Ыну по случаю переизбрания на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В посла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сайте Кремля,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В России высоко ценят ваш личный вклад в упроч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оюзн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ути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ш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наглядн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единодуш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оводимого Ким Чен Ыном курса", и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Переизбрание Ким Чен Ына состоялось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НС) нового, 15-го созыв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он был "вновь высоко избран" на высш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ст, который,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делает его верхов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траны. С инициативой выступил секретарь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Ли Ир Хван, заявивший, что "величие Ким Чен Ына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силой государства", а народ "глубоко почитает и следует за ним".

Одновременно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ряд кадровых решений.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стало назначение секретаря ЦК ТПК Чо Ён Вона на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НС,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фактическим спикером парламента. Он сменил Чхве Рён Хэ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лучил должность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емьер Пак Тхэ Сон сохранил должность, тогда как бывший глава кабинета Ким Док Хун назначен первым вице-премьером. Также был обновлен соста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о решение подчин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Втор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комиссию, отвечающую за оборон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абинету министров, что, по оценкам наблюдателей,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стремлении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д всеми секторами экономики, включая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такж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еализации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и утверждения бюджета, однако конкретные детали поправок пока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Созыв нового состава парламента и приняты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шения ставят своей главной целью оформить в виде законов те цели и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были оформлены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месяцем ранее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ак, на съезде Пхеньян подтвердил намерение сохранять статус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которы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Ким Чен Ын,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предметом для торга". В отношении США прозвучали сигналы о готовности как к диалогу, так и к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итики Вашингтона. При этом курс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остается жестким: Сеул был фактически обозначен как "враждебная страна", а идея объединения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одвинута.

Внутри страны приоритетом остается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я продолжение программы "20 x 10",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ежегодное создание крупных объектов в регион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иливается акцент на дисциплину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управленцев, а также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новой эпохи, связанной с именем самого Ким Чен Ына. Судя по решениям съезда и последующим кадровым изменениям, курс на обновление элиты и концентрацию власти вокруг действующего лидер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Южная Корея вводит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на фоне перебоев с нефтью

Южная Корея вводит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по экономии энергии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угрозы перебоев с поставками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Власти оценивают ситуацию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о серьезную и готовятся к "худшему сценар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пытаясь не допустить сбоев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 полуночи в среду, 25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усиливает действующую систему огранич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втомобилей в госсекторе. Речь идет о так называемой 5-дневной системе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последней цифре номера), которая теперь станет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более чем 20 тысяч организаций и затронет около 1,5 млн автомобилей.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климата, энергетики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Ким Сон Хван, мера позволит сэкономить до 3 тыс. баррелей нефти в сутки. При этом контрол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будет ужесточен: за повторные наруш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меры.

Помимо этого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недр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экономии: сокращение освещения в зданиях, ограничение работы лифтов, переход на дистанционные совещания, а также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ли совместных поездок на личном авто. В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ах уж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более жесткие сценарии - вплоть до введения 2-дневной системы, когда запрет будет по очереди на половину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ли расшире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частный транспорт.

Власти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при ухудшении ситуации ограничения могут распространиться и на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Пока же участие бизнеса носит доброво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днако,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Ким Сон Хван, "если уровень угрозы повысится, мы можем рассмотреть обя-

зательное введение мер". Уже сейчас крупные финансовые группы и конгломераты начали ввод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лужеб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усиливают контроль за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шаги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снабжения ключевым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ми продукт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ограничить экспорт нефти - важнейшего сырь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ластика, упаковки и синте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Замминистр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Ян Ги Ук отметил, что "в случае ухудшения ситу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регулировать общий объем поставок нефт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При этом компании, занимающиеся накоплением сырья,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жесткими санкциями, вплоть до лишения лицензий.

Несмотря на рост цен и отдельные сбои в поставках, власти пока не ожидают масштабного кризиса. Круп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упаковки заявляют, что дефицита нет, а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должают импорт сырь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как минимум до мая. Однако малый бизнес уже выражает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Федерац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К Ким Ги Муна, часть компаний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остановкой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итуация затрагивает все сферы жизни: "От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доставки еды до медицин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 практически всё зависит от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Трудно предсказать, где и когда возникнут проблемы". Он призвал ведомство срочно иск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ставок и готовить планы действий на случай дальнейшего ухудшения обстанов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Россияне переходят на KakaoTalk

Москва, 24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Популярное 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ложение KakaoTalk становится хитом в России. Это мессенджер,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данным на 23 марта, KakaoTalk входит в топ-10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бесплатных прилож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м сегменте App Store. В категории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оно занимает вторую строчку, уступая лишь мессенджеру Max.

KakaoTalk основал Ким Бом-су (он же Брайан Ким). 18 марта 2010 года состоялся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уск KakaoTalk, созданной командой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за два месяца. Основной фокус — простой обмен текстом, звонки и мультимедиа. Южная Корея на тот момент имела одну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в мире долей проникновения

смартфонов. KakaoTalk быстро стал альтернативой дорогим SMS-сообщениям. KakaoTalk быстро завоевал рынок благодаря функциям: бесплатные сообщения и звонки через Wi-Fi и 3G, групповые чаты без ограничения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очтении, отправка фото, видео и голосовых сообщений, стикеры, темы, персонализация, поддержка работы на ПК и разных устройства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5 год, у KakaoTalk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конкуренция в сфере интеграци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ведомлениями и цифров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в Южной Кореи. Мессенджер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и. Он привязан к реальной личности пользователя, им пользу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житель страны.

##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командующим Восточным округом Росгвард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командующим Восточным округом Росгвардии Александром Решетниковым. Он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вопроса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 войск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значимую роль Росгварди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авопоря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Отдельно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Надежная защи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наша общая задача. Мы видим, как сотрудники Росгвард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одходят к службе. Бойцы обеспечивают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хран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отстаивают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бласть продолжи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едомством и готова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его сотрудника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здравил командующего округом и личный состав ведомства с наступающим 10-летием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й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ят 27 марта.

## Сахалин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смогут подтверждать россий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родукции на остров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ежегодную встречу с активом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итогам работы дел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новым инициативам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вклад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тровную экономику вырос на 19,8 %, несмотря на объективные слож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шел в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Это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обще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первые гос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президент ТПП России Сергей Катирин,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регионе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Он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работе остров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 также объявил о нов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Теперь бизнесмены смогут подтверждать россий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родукции на острове. С таким сертификатом мест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е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госзакупках, льготы и преференции. Ранее за такой услугой им приходилось обращаться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это затягивало сроки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и этот вопрос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совете и встречах с главой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заявлялся, тщательно готовил экспертов. Буквально вчера нам сообщили, что все три эксперта аттестованы и теперь имеют право работать в регионе по 719-му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этот документ от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сзаказах и попас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о эт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ыла только одна точка, где оформляли эти документы, — Владивосток. Теперь с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и Сахалин,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Катирин.

Федеральный гость особо выделил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е. Группа организаций «Город Ост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здала ряд сервисов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семей, воспитывающих детей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циальным бизнесом руковод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Илона Волошина. Под ее началом работает частный детский сад, создана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перевозкой инвалид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автотакси. Бизнесумен и ее команда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и первы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астный пансионат.

— Мы давно работаем с людьми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за которыми необходим уход. Среди них есть пенсионеры,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семье, есть одинокие люди, есть те, кто находится на отдал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ы обслуживаем 400 таких клиентов. У нас возникла идея открыть частный пансионат. Но есть вещи, с которыми мы не справим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этому просим помощи в подключении помещения из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Илона Волоши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возьмет вопрос на контроль.

— Проект хороший, 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его поддерживаю. Выходите с конкрет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будем искать решени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е оставляем

без внимания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меняю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ших людей. В том числе поэтому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лидеров в России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и другие предложения от бизнеса. Так,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ремесленной палаты Александра Гринько о расширении перечня видов ремесл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включить в него сборщиков дикоросов,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чая и кофе, деревянных, стеклянных и кованых изделий.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добрил проек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 создании рыбного рынк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моменталь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вежей продукции на месте.

## «Провод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будут следить за общественным порядком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25 волонтеро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зучают видео с камер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отсеивают ложные тревоги и фиксируют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эпизоды. Сегодня проект работает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 этом году он должен охватить вс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этой и других инициатив серебряного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обсудили на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совет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ботает с ию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стал примером эффективного соедин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 человеческой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ью и жизненным опытом.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анализирует огромный поток информации с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и выделяет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е эпизоды. А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изучают их и определяют, стоят ли эти случаи внимания полиции.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работы «провод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работали 107 тысяч событий. 96%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отправили в архив как ложные срабатывания. 2,5 тысячи взяли в работу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По 400 подтвердились факты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Сегодня проект работа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также Ани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Но добровольцы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охватить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 Есть ресурс и желание помогать, поэтому надеемся, что появится также техничес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олонтерское движение у нас очень активное. Мы готовы и 100 человек привлечь, на севере много помощников, — обратилась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куратор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Провод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Юлия Кузьмины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 Система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помог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на островах, предотвращать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и преступления. Но, чтобы технологии работали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нам нужны люди. И я благодарю активисто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за то, что приходите на помощь в самых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заботитесь о наших земляках.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добавил, что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становили порядка 900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С апреля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их подключать и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ступ волонтерам.

В ход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Так, куратор серебряных добровольцев в сфере ЖКХ Алена Силачева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вышать правовую грамотность управдомов. Она выступила с инициативой запустить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с упором на практик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его мнению, это позволит качественнее обрабатывать обращения жильц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помним, движение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было запущено в 2019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1,5 тысячи активистов,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восьми направлениях — медицина, ЖКХ, экология, спорт, культура,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событийн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и «провод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Благода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открыл магазин одежды с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мволик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магазин одежды с уже известной символик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 маяком и стилизованной буквой «С» в виде щита. Важную рол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ыграла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льго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получили уже 40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щая сумма — свыше 12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Мы оказываем поддержку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бизнес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ффективная и конкурентная экономика». Он был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не только в виде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 имущества. Они также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получают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работы информацию. Так мы помогаем бизнесменам начать свое дело, встать на ног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ни создают рабочие места, своими налогами пополняют бюджет. А в случае с одеждой с саха-

линской символикой решается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задача. Ее покупаю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но и туристы. Они носят эту одежду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и тем самым популяризируют отдых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пособствуют повышению ег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основе проект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одежды с островной символикой — стремление отразить дух и самобытно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Для воплощения идеи команда обрати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получил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по сниженной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е на запуск 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йчас в коллек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бомберы, толстовки и футболки.

— Мы очень рады быть причастными к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бренда «Сахалин — маяк России». Почти год мы работали над концепцией, тестировали разные фабрики и материалы. Скоро поступят новые коллекции: летние, детские, женские. Мы хотим, чтобы каждый гость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увез с собой частичку острова, — поделил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Андрей Бондаренко.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ддержк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доступна на сайте mybusiness65.ru и по телефону 8 800 222 0123.

##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по 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щита. Забота. Ува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чтобы помочь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вопросов. Часть обращений граждан была отработана профильными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еще до начала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личный прием попали те заявители, чьи вопросы требова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ия главы региона.

— Сегодня мы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найти решения по те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оставались открытыми. Каждая такая встреча помогает нам лучше понимать ре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людей и оперативно на них реагировать.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вы видели конкр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наше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ась Цой Эл Дек с просьбой о содействии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Вопрос был реше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женщину направили в профи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Кроме того, семью пригласили на личный прием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супруга — участника СВО.

—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с населением очень нужны и помогают отлично. М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с 2019 года, и,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здесь происходят заметные улучшения, — отметила женщина.

Другой важный вопрос подняла Надежда Сальникова из Анивы,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интересы родителей детей с мент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Она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ездные приемы детского психиатра и невролога в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Аниве нет детского психиатра. Чтобы попасть к специалисту, родители вынуждены трати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средств на поездки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Запись расписана на месяцы вперед, а платные услуги стоят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 Вопрос решен положительно.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ием в городск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е, гд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сихиатр. Кроме того, выездная мобильная бригада из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пополнится специалистами-психиатрами, — отв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шу просьбу услышали — теперь хотя бы раз в месяц к нам будет приезжать детский психиатр. Считаю, что мы добились важ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для все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Чем чаще власть спрашивает у людей, что им нужно, и, главное, решает эти вопросы, тем лучше, — добавила Надежда Сальникова.

Со своей проблемой столкнулась и молодая специалист Ангелина Лосева. Медсестра приехала из Астрахани и устроилась в Корсаковскую центральную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лучила обещанные выплаты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Деньги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числить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 Прошло уже семь месяцев, но выплат так и нет, — рассказала Ангелина.

Вопрос был решен на месте: девушка получит деньг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 Ответом я очень довольна.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удобны тем, что при письменном обращении ответ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получить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А здесь можно задать вопрос губернатору напрямую и сразу услышать решение, — поделилась медработник.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и другие обращ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сего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однял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Часть из них удалось реши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встрече. Граждане, чьи ситуации требуют более дета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и, будут приглашены на последующие личные приемы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Все поступившие обращения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и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세계한상대회, 첫 민간 운영위원장 체제 출범

- 황병구 운영위원장, 윤덕창 부위원장 임명...  
2년간 세계한상대회 주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23일(월)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하고, 대회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에는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윤덕창 아시아 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연합회장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임명을 기점으로 2년간 세계한상대회 운영을 이끈다.

이번 임명은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세계한상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민간 자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대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세계한상대회의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회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세계한상대회: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 (재외동포청 제공)

## 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 신청 안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해 모국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개최합니다.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국과 모국 간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연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 공고문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www.korean.net), ~2026. 4. 20.(월) 23:59(한국시간 기준)  
**신청 경로:** 코리아넷 홈페이지 (www.korean.net) >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 사업 > 사업 신청 >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청소년/청년으로 구분 신청)  
 (재외동포청 제공)

## Форум по вопросу объединения виз Н-2 и F-4 обозначил новый этап диалог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страница 4)  
 В этом же контексте она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и на более широкую проблему. Судьбы многих корё-сарам оказываются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 миграционно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Эти политики часто формируются раз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и не всегда согласов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же их последствия сходятся в судьбах конкретных семей.

**Меморандум и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Форум оказался важным не только как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В этот же день между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окумент закрепил намерение двух сообществ выстраивать более системный диалог и совместно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затрагивающи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Ещё одним значимым шагом стало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 передали через главу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просьбой о встрече. Инициаторы считают, что прямой диалог с высш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ью мог бы стать важным шаго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долгосроч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

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поиска решений по наиболее острым вопросам.

**Шаг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убъекта диаспоры**

Главным итогом форума стало не только обсуждение визовых изменений, но и сам факт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группам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орё-сарам имеют разн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судьбу, разные масштабы присутствия и разные традиции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ако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он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 схожими вызовами — вопросами визового статуса, доступа к рынку труда, семей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Подписание меморандума и совместное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показали, что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всё активнее формулировать свои общие интересы.

Если этот процесс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диаспорных сообществ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оявлению в Корее нов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убъекта диаспоры — объединён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пособного не тольк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е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работк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ошедшую встречу не как разовую дискуссию о визах, а как начало более долгого и важного процесса.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АКПК)

## [단독] 중국 · 고려인 동포들, '대통령 초청 간담회' 공식 건의... 청와대와 조율 중

김경협 청장에게 '대통령 초청 동포간담회' 건의서 직접 전달  
 노대통령 동포현장 방문 사례 언급...  
 "직접 소통 상징적 의미" 강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대한고려인협회 MOU...  
 동포사회 현안 해결 협력 체류·노동·건강보험 등  
 국내 동포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중국동포단체협의회(회장 김세광)와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가 협약식을 맺고 국내 동포사회 주요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간담회 개최를 공식 건의했다.

양 단체는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도서관에서 동포사회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에게 '대통령과의 간담회 개최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 선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공동체가 체류 제도, 노동 환경, 사회 정착, 자녀 교육 등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양 단체는 공동 대응을 통해 동포사회 현안을 정책 의제로 만들고 정부와의 협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 단체는 대통령에게 국내 동포사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에서 간담회 의제로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 부담 완화 ▲산업현장 노동환경 개선 ▲동포 자녀 교육 지원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사회통합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대통령이 각 지역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자체 간담회와 산업 현장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동포사회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직접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광 의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동포사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가 동포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동포사회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김세광 의장(왼쪽)과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오른쪽)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가운데)에게 대통령 초청 동포간담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 큰 상징적 의미와 정책적 신호"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회장도 "대통령의 간담회는 국가가 우리들을 동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측과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조율 단계를 거치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는 공동 선언에서 "국내 동포사회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동포사회 현실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선언과 대통령 간담회 건의는 국내 동포 공동체가 공동 의제를 통해 정책 대화를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재외동포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5월 22~26일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로 이야기꽃 핀다

제14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열려...개막 앞두고 자원활동가,  
피크닉 마켓 동시 모집

이혁상 프로그래머 "이동 · 공존 가치 재조명..."

제14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애관극장, 한중문화관 등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를 주제로 한 아시아 유일의 전문 영화제로서 의미를 이어간다.

인천은 1902년 12월 한국 이민의 출발지로, 다양한 이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도시라는 점에서 영화제의 상징적 배경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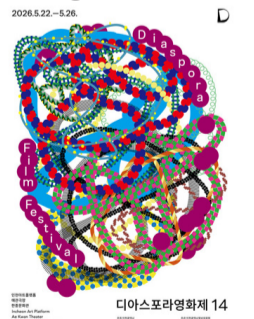
영화제 측은 현개막을 앞두고 봄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디아이즈(D-eyes)'를 모집 중이다. 모집은 4월 24일까지 진행하며, 선발 인원은 운영팀, 상영관팀, 홍보팀으로 나뉘어 영화제 전 기간 활동한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자원봉사 시간 인정,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참여증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 중인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광장에서는 피크닉형 플라마켓 '만국피크닉'이 열린다. 기존 '만국시장'을 확장한 형태로, 먹거리와 수공예품 등 다양한 셀러들이 참여하는 야외형 문화 장터다.

이혁상 프로그래머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비인권적 상황에 놓인 오늘날, 이동과 공존의 가치를 다루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시간을 되짚고, 더 많은 공감과 성찰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디아스포라영화제 14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Победителю конкурса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обещают приз в один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по трем номинациям: «Электромонтер», «Ветеринарный фельдшер» и «Второй старт». Заявки от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уже в марте.

«В этом году ввели новую номинацию „Второй старт“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а охватывает широкий круг профессий и дает участ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к подтверждению переобуч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Воли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первые вошел в число призер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этапа. Николай Иконников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ашинист экскаватора».

Отметим, конкурс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проводится Минтрудом России с 2012 года. С 2025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н был перезапущен и стал ключев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еловек тру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адры».

### Сахалин 어린이도서관, 국가 프로젝트 '가족' 우수사례 선정

2025년 9월 초 러시아 문화부는 2026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의 사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은 국가 프로젝트 '가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족 가치와 문화 인프라' 사업에 따라 문화시설 현대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82개 지역에서 총 1,58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사할린주는 어린이 문화교육센터 조성 5건, 문화회

관 우수 모범사례 4건, 도서관 우수 모범사례 3건 등 모두 12건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아나와 중앙도서관 시스템 산하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우수 모범사례' 부문에 선정됐다. 선정 프로그램은 '스스로 만들기' 동아리를 통한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로드맵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보조금은 시설 보수와 현대적 공간 조성, 신규 장비 구입, 장서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신규 장비에는 장애인용 설비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창의적 자기표현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공예 기법 교육과 신규 독자 유치, 지역 내 어린이 여가 활동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리나 최 어린이도서관장은 "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작품 주제별 전시, 문학·창작 모임, 가족 행사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며 "현대 도서관은 책만 있는 곳이 아니라 창작과 성장,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아리의 경험이 다른 지역 동료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돼 문화시설을 더욱 개방적이고 어린이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개편 국가 프로젝트들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사례 은행이 구축됐으며, 이는 전국 문화시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을 현장에 도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 Сахалинск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отбор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Ф подвело итог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тбора регионов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убсидий в 2026 году.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уч-

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по проекту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культур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1 587 заявок из 8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а 12 заявок: пять — на создание детских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четыре — на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и три — на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библиотек.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МБУ «Анивска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ая библиотечная система» выиграл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среди библиотек». Победу принесла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через кружок „Сделай сам“».

Учреждение начало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рожной картой. Субсиди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ремонта,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покупки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ключая устройств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пополнения книжного фонда. Проект улучшит условия для творческ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детей, поможет им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научит различным техникам изготовления поделок, привлечет новых читателей и разнообразит досуг юных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Мы планируем не просто пров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но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тематические выставки детских работ, литературно-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и сем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врем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книги, но и место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развития и общения. Уверена, что опыт нашего кружка будет полезен коллега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поможет сделать культу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еще более открытыми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для юных читател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Галина Цо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бновлен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инициирова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с 2025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нкурса сформирован банк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Он станет незаменимым помощником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могая им находить свежие идеи и внедрять инновации в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E-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